

<프로그램 개요 및 시나리오>

자연해설	<h1>소백산 노리외</h1>	활동장소	소백산국립공원 천동지구 일원
		소요시간	2시간
		참가대상	전체
		참가인원	20명 내외
		작성자	자연환경해설사

활동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공원의 가치를 이해하고 소백산국립공원의 자연자원에 대해 알아보며 체험활동을 통해 자연을 느끼고, 자연의 소중함을 생각한다. 국립공원 산행예절 및 안전산행요령에 대해 알아보며 즐거운 탐방문화와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준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자 명단, 사진자료, 나무카드, 헬멧, 안전벨트 등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 활동 시 주의 및 안전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참여자 대상에 따라 내용을 조절하여 프로그램 집중도를 향상 시킨다.

단계	내용	시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리엔테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자 확인 및 프로그램 소개 안전 및 주의사항 안내 천동탐방안내소 소개 국립공원 및 소백산국립공원 소개 	30분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동자연관찰로 탐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동자연관찰로 자연해설 나무카드를 이용한 관찰 	4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한 국립공원 산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행예절과 안전산행 교육 실내 인공암벽 등반 체험 	40분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무리 및 인사나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자 소감 나누기 및 마무리 설문지 작성 	10분

시나리오

오리엔테이션

- 프로그램 소개 및 안전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할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자연환경해설사 000 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모두 모이셨는지 인원파악을 하겠습니다. (인원파악 후) 네, 다 모이셨네요. 그럼 오늘 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동탐방안내소에서 전시물 및 영상 소개, 그리고 국립공원 및 소백산국립공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후 밖으로 이동하여 천동자연관찰로를 탐방하며 식물에 대해 알아보고 나무카드를 이용해 직접 나무를 찾아 관찰해 보는 시간을 갖은 뒤 다시 천동탐방안내소로 이동하여 안전한 국립공원 산행을 위해 산행예절과 산행요령에 대해 알아보고 실내 인공암벽 등반 체험을 한 뒤 마무리 인사와 설문지 작성으로 전체 일정이 마무리 됩니다. 전체 운영시간은 약 2시간 정도이며 다양한 체험활동이 준비되어 있으니 여러분은 저와 자연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고 오감을 활용해 자연을 느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소리가 울리고 작은 소리라도 크게 들리니 큰소리로 떠들거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뛰거나 장난을 치면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삼가 주시길 바랍니다. 잘 지켜줄 수 있겠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천동탐방안내소 소개

이곳 천동탐방안내소는 소백산을 방문하는 탐방객에게 전시해설, 체험활동(인공암벽 등반, 수생태영상 관찰, VR 체험, 크로마키 사진)을 하는 곳입니다. 1층에는 소백산의 사계, 깃대종 등 다양한 전시물과 수생태 카메라 및 국립공원 홍보 등 영상 모니터 관람,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실내 인공암벽 등반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의 장소를 간접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VR체험과 소백산 경관 및 여우를 배경으로 기념사진 촬영하는 크로마키존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환경생태교육을 할 수 있는 강의실과 편안하게 책도 보고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있습니다. (사계) 먼저 여기 소백산의 사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백산이란 이름은 겨울의 아름다운 상고대와 순백의 능선 풍경이 만년설이 덮이는 백두산과 모습이 흡사하다 하여 '작은 백두산'이라 하여, '소백산'이라 붙여졌습니다. 고지대에 이어지는 능선이 아름답고 계곡이 많은 소백산은 봄이면 하늘과 맞닿은 능선을 따라 야생화들이 만발하고, 여름이면 계곡물이 시원하게 흐르고, 가을이

면 잎들이 형형색색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들고, 겨울이면 고지대의 눈부신 설경이 펼쳐져 사계절 내내 아름답고 멋진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소백산은 아름다운 자연을 간직하고 있으며 잘 보전해서 우리의 후손들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물려주어야겠습니다. (영상) 이번엔 모니터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 영상 중 위쪽 2개는 천동계곡과 비오톱에 설치된 실시간 수생태 카메라 영상으로 보는 바와 같이 맑고 깨끗한 물에 다양한 물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래쪽 2개 영상은 국립공원 홍보영상으로 동식물을 비롯해 소백산국립공원 명소 등이 상영되고 있습니다. 천동계곡은 1급수로 아주 맑고 깨끗한 물로 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빠르게 움직이니 집중해서 자세히 보셔야 할 거예요. (참갈겨니) 영상에 보면 가장 많이 보이는 물고기는 참갈겨니입니다. 참갈겨니는 눈이 크며 등지느러미가 시작되는 점 아래의 몸통 옆면 가운데에서부터 꼬리지느러미 앞까지에는 청색이나 담흑색의 폭이 넓은 세로띠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통 옆면 아랫부분을 자세히 보면 노란 빛을 띵니다. 주로 물속에 사는 곤충을 먹으며, 갈겨니와 동일한 종으로 분류되다가 2005년 신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우로 바뀌었지만 2015년 6월까지 소백산국립공원의 깃대종이었습니다. (버들치) 여기 몸 빛깔은 지저분한 물고기 보이시나요? 바로 버들치입니다. 황갈색 바탕에 몸통 옆면의 등 쪽에는 암갈색의 작은 점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넓은 하천에도 서식하지만 좁은 산간 계류를 더 좋아합니다. 활발하게 행동하며 잡식성으로 갑각류, 곤충류, 작은 동물, 식물의 종자 등을 먹으며 먹성이 매우 좋아 물고기 중에서도 대식가로 꼽힙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깨끗한 1급수에서만 사는 1급수의 지표종입니다.

요즘 깨끗한 물에서 사는 물고기의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바로 고랭지 경작지나 하천 정비로 농경지에서 유입되는 비료 성분과 흙탕물이 계곡이나 하천 상류를 오염시키고, 낚시, 통발 등 남획 때문인데요, 이를 장시간 방치할 경우 자연스럽게 물고기는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국립공원에서는 계곡은 지정된 곳을 제외하고 출입금지 구역인데, 바로 수서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 천동탐방안내소 소개

- 국립공원 및 소백산국립공원 소개

다음은 국립공원이 어떤 곳인지 제가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이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생태계,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후세에게 전해주기 위해 국가가 직접 보호하고 관리하는 곳을 말하며 우리나라에는 산악형 18개, 해상·해안형 3개, 사적형 1개 총 22개의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쉽게 소백산국립공원을 숫자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1', 숫자 '1'은 지금 사진에 보이는 나무입니다. 바로 '주목(朱木)'입니다. 나무줄기 속 색깔이 붉은빛을 띠고 있어서 '붉을 주(朱)'에 '나무 목(木)'을 써서 주목이라 불립니다. 소백산 제1연화봉~비로봉 사이에 3,800여 그루가 있으며 우리나라 최대 주목군락으로 천연기념물 244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습니다. 숫자 '2', 국립공원에는 그곳의 생태적, 지리적,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며 중요하다고 인식되어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지정, 보호, 관리되는 생물종인 깃대종이 각각 2개씩 있는데 여기 소백산국립공원의 깃대종은 모데미풀과 여우입니다. 모데미풀은 고도 1000M 이상 올라가셔야 볼 수 있는 우리나라 자생종으로 소백산국립공원에 최대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우는 예전에는 많았으나 여우목도리, 모피 등의 남획과 1970년대 쥐잡기 운동으로 멸종되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 소백산에서 여우복원사업을 시작해 지금은 10여 마리 이상이 여기 소백산에 살고 있습니다. 숫자 '3', 소백산은 행정구역상으로 충청북도 단양군, 경상북도 영주시, 봉화군 세 지역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숫자 '4', 소백산국립공원은 18개의 산악형 국립공원 중 지리산, 설악산, 오대산에 이어 네 번째로 넓으며 면적이 322.011km²입니다. 숫자 '5', 소백산 하면 5월의 철쭉으로 유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철쭉은 저지대에 피는 짙은 색의 산철쭉이며 철쭉은 고지대에 피며 꽃의 색상은 은은한 연분홍색으로 꽃의 여왕이라 할 만큼 우아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5월이 되면 소백산의 능선을 아름답게 수놓아 풍경을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숫자 '7', 소백산국립공원의 탐방코스는 영주에 있는 초암사코스, 삼가동코스, 희방사코스, 단양에 있는 죽령코스, 어의곡코스, 천동계곡코스, 도솔봉코스 총 7개의 코스가 있습니다. 숫자 '18', 소백산국립공원은 1987년에 18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숫자 '22', 다들 아시겠죠? 앞에서 계속 언급한 우리나라 국립공원 수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숫자를 이용해 소백산국립공원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일정을 위해 천동탐방로 입구로 이동하겠습니다.



▲ 국립공원 및 소백산국립공원 소개

천동자연관찰로 탐방

- 천동자연관찰로 자연해설

이곳은 소백산국립공원의 대표 탐방로인 천동탐방로로 천동계곡을 따라 이어지는 탐방로 주변에는 야생화가 만발하고 다양한 나무들과 자연의 친구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숲에는 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으니 큰소리로 얘기하거나 나무나 풀을 함부로 꺾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뱀, 돌부리, 나뭇가지가 뺨에 있어 위험하거나 다칠 수 있으니 지정된 탐방로만 다니고, 뛰거나 장난치지 않습니다. 혹시 다치신 분이 있으면 제게 구급가방이 있으니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간단하게 몸을 풀고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칭 후) 소백산은 천상의 화원이라 불리며 다양한 야생화와 나무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천동자연관찰로를 탐방하면서 식물들을 직접 보고 관찰하며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철쭉) 여기 이 나무의 이름은 산철쭉입니다. 소백산은 봄에 피는 철쭉으로 유명한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철쭉은 바로 이 산철쭉입니다. 소백산의 철쭉을 보시려면 능선에 가셔야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지대에 피는 짙은 색의 산철쭉과 달리 고지대에 피는 철쭉은 꽃의 여왕이라 할 만큼 우아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산철쭉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철쭉의 꽃은 산철쭉보다 더 크고, 잎 끝은 둥근 반면 산철쭉의 잎 끝은 뾰족하고, 꽃의 색깔도 철쭉은 연분홍색이고 산철쭉은 자주색입니다. 5월이 되면 철쭉은 소백산의 능선을 아름답게 수놓아 많은 탐방객들이 이 철쭉을 보러 소백산을 찾아옵니다.

(주목) 이 나무는 나무줄기 속 색깔이 붉은빛을 띠고 있어서 ‘붉을 주(朱)’에 ‘나무 목(木)’을 써서 주목(朱木)이라 불립니다. 주목은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단단하고 강한 생명력을 지닌 나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소백산 정상부에는 주목이 자연적으로 모여 자라는 군락지가 있는데 정상인 비로봉과 제1연화봉 사이에 3,800여 그루가 자생하고

있습니다. 이 주목군락은 우리나라에서 최대 군락지이며 생물학적 보전 가치가 높아 천연기념물 244호로 지정되어 보호하고 있습니다. 주목은 가을이 되면 빨강계 열매가 열립니다. 열매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붉은 과육은 종자를 완전히 감싸지 않고 있어 안의 씨가 보입니다. 주목 씨는 눈에 잘 띄는 열매와 함께 동물과 새의 먹이가 되며 그 배설물을 통해 번식합니다. 과육은 맛이 달달하며 씨는 약간의 독성이 있어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사약을 만들 때 주목의 씨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목의 열매를 먹을 때 씨는 먹으면 안 됩니다.

(생강나무) 여기 있는 나무의 이름은 '생강나무'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나무의 가지를 분질러 냄새를 맡으면 생강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가지를 꺾지는 마세요. 제가 미리 준비해온 가지를 나누어 드릴 테니 냄새를 확인하고 싶은 분은 가지를 살짝 분질러서 냄새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정말 생강냄새가 나나요? 이 나무는 이른 봄 노란 꽃을 피우는 대표적인 나무로 '산수유'와 꽃이 닮아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합니다. 두 나무가 꽃을 피우는 시기가 3~4월로 비슷하고, 잎이 나기 전 꽃을 먼저 피우는 것은 물론 꽃의 생김새도 매우 비슷해 헷갈립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둘을 구분하기가 생각만큼 어렵지는 않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꽃의 생김새가 다르며 꽃자루도 생강나무는 짧은 반면 산수유는 길고, 줄기를 보면 산수유는 불규칙하게 수피가 벗겨집니다. 잎과 열매도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열매의 경우 생강나무는 검은색의 둥글고 산수유는 타원형의 붉은 색입니다. 그리고 꽃을 본 곳이 산이라면 생강나무, 집이나 동네 어귀라면 산수유나무일 확률이 높습니다. 생강나무는 주로 산에서 자생하지만, 산수유나무는 사람들이 약용으로 심은 수목이기 때문입니다.

(층층나무) 이 나무는 층층나무입니다. 나무의 생김 모양을 보시면 왜 층층나무라고 불리는지 알 수 있는데 나무의 가지가 계단처럼 층을 이루며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단나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흰색의 꽃은 5~6월에 작은 꽃이 모여서 피고, 가을이 되면 둥근모양의 열매가 붉은색에서 검은색으로 익습니다. 층층나무는 주위의 다른 나무보다 빠른 속도로 자라며 가지를 넓게 뻗습니다. 왜냐하면 햇빛을 많이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층층나무는 소나무처럼 모여 살지 않고 혼자서 살아가며, 다른 나무들이 살아가지 못하게 해서 층층나무를 '숲속의 무법자'라고 부릅니다.

(물푸레나무) 여기 줄기에 얼룩무늬가 있는 나무가 보이나요? 이 나무는 물푸레나무입니다. 나무 가지를 잘라서 물에 담그면 물이 잉크를 떨어트린 것처럼 푸르게 변한다고 해서 '물푸레나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물푸레나무는 탄력이 좋아 도끼자루나 괭이, 망치 등의 자루로 사용되며 옛날 서당에서 종아리를 때리는 아주 질긴 나무로도 유명합니다. 계곡 주변에 많이

있는데 물속을 보면 물푸레나무 잎보다는 참나무 잎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수서생물들이 물푸레나무 잎을 더 좋아해서 빨리 먹어치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계곡 주변의 나무는 물 속 생물들의 먹이와 서식처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그들을 드리워주어 물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역할도 합니다. 계속 탐방하며 식물을 좀 더 만나 보겠습니다.



▲ 천동자연관찰로 자연해설

- 나무카드를 이용한 관찰

이번 시간은 돌아가시는 길에 나무카드를 이용해 직접 찾아 관찰해보며 자연과 좀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나무카드를 나누어 드릴테니 여러분은 나무카드에 있는 나무의 특징을 보며 천동자연관찰로를 탐방하며 직접 찾아 카드와 비교하고 관찰해 보시면 됩니다. 나무를 잘 찾기 위해서는 숲을 자세히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니 뛰어 다니거나 숲속 깊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모두 안전에 주의하며 시작하겠습니다. (나무카드를 이용한 관찰 후) 여러분 나무카드에 있는 나무를 찾아 수피나 잎 등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며 관찰해 보았나요? 네, 나무마다 잎이 뾰족하거나 넓은 것, 나무수피의 색깔과 굴곡 등의 특징이나, 나무들이 모여서 살거나 혼자 외롭게 사는 등 살아가는 방식도 모두 다릅니다. 나무를 직접 찾아보면서 주변도 둘러보고 자연에 대해 알아가며 여러분이 자연과 조금 더 친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 나무카드를 이용한 관찰

안전한 국립공원 산행

- 산행예절과 안전한 산행요령

이번시간은 안전한 국립공원 산행을 위해 산행예절과 산행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안전관리반 000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국립공원은 많은 탐방객이 찾는 곳입니다. 산행은 자연과의 만남, 사람과의 만남으로 산행예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연에 피해를 주지 않고 즐겁고 건강한 산행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신경 써야하며 탐방로에서는 특수한 상황(부상자 후송 등)이 아니면 서로 양보해 주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또한 큰소리로 떠들면서 걷는 것은 삼가하고 특히 술에 취한 상태의 산행은 타인에게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금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지킬 수 있죠?

또한 산행예절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안전한 산행요령입니다.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는 곳은 오르지 않으며 등산에 필요한 장비, 의류, 식량을 항상 휴대해야 합니다. 등산은 어떠한 상황과 위험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여야 합니다.

그리고 산행 전·후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야 산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관절의 부상 및 근육 결림을 예방하고 산행 후 몸의 피로를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이 제한된 구역에는 가지 않으며 반드시 지정된 탐방로로 다녀야 합니다. 출입이 제한된 구역이나 비정규탐방로를 다닐 경우 자연을 훼손하거나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산행예절 및 산행요령 모두 잘 지켜줄 수 있겠죠? 네, 그럼 모두 즐겁고 안전한 산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 산행예절 및 안전산행 교육

- 실내 인공암벽 등반 체험

먼저 인공암벽 등반 시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등반 시 다치거나 위험할 수 있으니 절대로 장난을 치지 않으며 대기하는 사람은 질서를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헬멧과 안전벨트를 들고) 이것은 체험에 사용할 장비인 헬멧과 안전벨트입니다. 헬멧은 머리를 보호하고, 안전벨트는 오토빌레와 연결해 떨어지더라도 다치지 않게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기에 꼭 착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인공암벽 등반 자세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 안전에 중요하니 집중해서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양손은 홀더를 잡고 양발은 앞꿈치로 홀더 위를 딛고 안정된 자세 후 시선은 다음 잡을 홀더를 향한 뒤 손으로 잡고 다음 발 딛을 홀더를 주시한 채 발 앞꿈치로 홀더를 딛고 양손, 양발이 홀더를 잡고 딛은 후 시선을 위로 향하며 이동하시면 됩니다. 이 행동을 반복하는데 중요한 것은 항상 몸의 양손, 양발 4지점 중 3지점을 유지하시는 것입니다. 모두 아시겠죠? 네, 그럼 몸도 풀고 부상 방지를 위해 스트레칭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스트레칭 후) 체험은 준비된 순서대로 1회에 2명씩 등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람은 헬멧 및 안전벨트를 착용한 뒤 안전선 밖에서 대기하며 체험이 끝난 사람은 헬멧과 안전벨트를 제거한 뒤 안전선 밖에서 대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에 유의하며 천천히 등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앞에 2분 먼저 나와 체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인공암벽 등반 체험 후) 여러분 인공암벽 등반 체험 재밌었나요? 체험하는 모습을 보니 잘하시는 분도 있고 조금 무서워하시는 분도 있는 거 같습니다. 인공암벽 등반은 자주 접하기 쉽지 않은데 체험을 하고 나면 집중력과 몸의 균형이 좋아지고 심신(心身)이 건강해져 인공암벽에 관심 있는 분은 취미생활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실내 인공암벽 등반 체험

마무리 및 인사나누기

어느새 헤어질 시간이 되었는데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즐거웠나요? 네, 그럼 오늘 프로그램에 참여해본 생각이나 느낌, 좋은 의견들을 지금 나눠드리는 설문지에 작성해 주세요. (설문지, 필기구 배부)

오늘 저희는 천동지구에서 천동탐방안내소, 국립공원 및 소백산국립공원에 대해 알아보았고, 천동자연관찰로를 탐방하며 자연 이야기와 체험활동을 통해 자연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관찰하며 느껴보았습니다. 그리고 산행 시 자연과 탐방객에 대한 산행예절과 안전한 산행요령에 대해 알아보고 실내 인공암벽 등반 체험을 통해 몸이 건강해 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추억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오늘을 계기로 국립공원의 가치와 숲에 살아가는 많은 생명들을 생각하며 자연을 소중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만나는 날을 기약하며 지금까지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자연환경해설사 000 였습니다. 감사합니다.